



불교총지중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6년
2017년 8월 1일
음 6월 10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1년 제213호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법어



오늘,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참석하여 주신 스승님들과 보살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의 계율은 청정한 삶을 유지하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 가운데 살생을 금지한 불살생계는 가장 중시되는 계율이며, 방생(放生)은 불살생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외되고 억압받는 중생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인간 방생'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불자가 수행해야 할 참 진리의 길이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방생은 이러한 자각(自覺) 즉,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우주 만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와 한 몸인 모든 존재에 대한 존귀함과 불해(不害)를 말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불살생과 자비의 구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同體大悲)가 아니겠습니까.

우주만물이 나를 지탱해주는 존재이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파괴되지

작한다면 나의 존재도 마침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래서 살생을 엄격히 금하고 방생을 적극 권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생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氣)를 죽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에게 냉소를 보내고, 자신감을 상실시켜 실망하게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살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생의 의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속박되고 갇혀진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 해방시켜 주는 것, 타인의 닫힌 가슴을 두드려 열리게 하는 것, 용기를 씹게 해주는 것,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 에너지가 생기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방생, 사람방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보살님, 각자님들의 정진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일체 소원이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옴마니반메훎.

총기46년 7월 17일
종령 효강합장

총기 46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봉행

하반기 49일 진 호국가불사, 인간방생이 가장 큰 회향



▲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불교총지종은 7월 17일 단양 군민 문화체육관에서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 약 2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46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하반기 49일 불공 기간 동안 전국 서원당에서 봉행된 국가 안위를 위한 발원과 조상불공의 원만한 회향을 서원하는 자리였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가 대독한 호국안민기원법회 법어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우

주만물이 나를 지탱해주는 존재이기에 어느 것 하나라도 파괴되기 시작한다면 나의 존재도 마침내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래서 살생을 엄격히 금하고 방생을 적극 권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살생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氣)를 죽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에게 냉소를 보내고, 자

신감을 상실시켜 실망하게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살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방생의 의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속박되고 갇혀진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 해방시켜 주는 것, 타인의 닫힌 가슴을 두드려 열리게 하는 것, 용기를 씹게 해주는 것,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 에너지가 생기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등이 바로 '인간방생, 사람방생'이라고 할 것입니다”라

며 불살생과 인간방생의 공덕을 설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지난 49일 동안 용맹정진하신 교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내 부모와의 소중한 인연으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은덕은 죽는 날까지 갚아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불공의 회향을 통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이 무량하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날 법회장은 김윤규 지휘자(만다라 합창단)가 이끈 200여 명의 총지종 연합합창단의 아름다운 찬불가로 울려 퍼졌다. 찬불가를 끝으로 이날 법회는 마무리됐다.

이번 법회는 인간방생을 주제로 열려 전국의 교도들이 보시한 방생비는 울산의 노인요양병원 시설 확충에 쓰여진다.

법회 후에는 전 교도가 함께 남한강 구담봉을 출발하여 청풍 선착장까지 유람선을 타고 청풍호의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했다.(6면에 계속)

단양=김종열기자

불교총지종 대만 타이쥙 공승 법회 참가

대만 타이쥙 삼보호지회(三寶護持會)가 주최하는 재승(齋僧) 법회에 인선 통리원장과 화평 교육원장, 서강 사무국장이 참가하게 되었다.

대만 중부의 대표적인 재가불자조직인 삼보호지회의 회장인 왕진복(王進福) 거사의 초청으로 참여하게 될 이번 대회에는 출가자와 재가자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승대회로서 7월 30일 타이쥙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거행된다.

대만의 대표적인 불교행사의 하나로서 매년 거행되는 이 재승법회는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다

시금 맹세하고 현재 부모의 건강장수와 재난소멸을 기원하며 과거 7세 부모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효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사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진다. 왕진복 거사는 총지종에서 개최하는 국제재가불자포럼(ILBF)과 인연이 되어 그간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 삼보호지회를 지난 십년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총지종의 방문 인사들은 대만 불교의 거사 활동을 직접 참관하게 되며 조상을 위한 재불공이 어떻게 봉행되는지를 참관하게 될 것이다.



▲ 대만법회참가_타이쥙 공승법회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제4회
청소년 바른인성형성
프로그램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모집기간 2017년 07월 03일 (월) ~ 12월 17일 (일)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교 (4학년 이상)
• 팀으로 참가 (5~8명)

참가방법 각 사원 주교 및 행사 접수처 문의
☎ 02-552-1080~3
✉ j-yeoni@hanmail.net

여행내용 ① 5~8명이 한팀이 되어 1박 2일간 함께 떠나는 여행
② 팀도 자유롭게 장소도 내맘대로
③ 참가자 1인당 8만원 지급
④ 멘토(성인) 1명 동반 필수
⑤ 여행참가자 한마음캠프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

한마음
캠프

일시 ▶ 추후공지 (겨울방학내 2박3일 예정)
장소 ▶ 추후공지
대상 ▶ 나를 찾는 여행 참가자 전원

“여행 속에도 나누고
문화체험도 즐기세요!”

주최 불교총지종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진각종, 심인중 · 고 청소년 수계불사 봉행

“참되고 바른 주인공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 심인중고 수계법회

진각종은 7월 17일 오후 4시 대명심인당(주교 원명 정사, 대구시 남구 현충서길 128)에서 종립 심인중 · 고 청소년 수계관 정불사를 봉행했다.

올해 처음 열린 심인중 · 고교 학생 대상 수계관정불사에는 심인중학교 26명과 심인고등학교 54명 등 총 80명의 학생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수계관정불사에서 수계자들은 각

마아사리 원명 정사로부터 단주를, 전계 아사리 덕일 정사로부터 금강수(金剛水)를, 교수아사리 증혜 정사로부터 수계 증서를 받고 오계를 지킴으로써 다짐했다.

수계자들은 오계(△자비한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키우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바른 행동을 이끄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정직

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전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곧고 바른 마음을 키우는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를 수지하고 청소년 불자로 거듭났다.

전계아사리 덕정 정사는 법어를 통해 “항상 변함없이 마음으로 오늘의 약속을 실천하여 지혜를 더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을 따라 바른길을 열어 능히 모든 복과 지혜 가득한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계자대표로 수계를 받은 심인고2학년 류호영 학생(진각학생회장)은 “오늘 수계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기분이 새롭다”면서 “오계를 잘 지켜 남은 고교 생활을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인중3학년 오상화(현정) 학생은 “처음 심인당이란 곳에 와서 어색했지만, 불명을 받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다”면서 “수계를 받은 만큼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당선

7월 13일 선거에서 139표 중 59표 획득



▲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편백운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제 26대 총무원장에 편백운 스님(前 총무원 부원장)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 스님)는 7월 13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 26대 총무원장 선거를 진행, 선거인단 총 143명 중 139명이 투표에 참

여해 기호 2번 편백운 스님이 59표를 얻어 당선됐다.

기호1번 능혜 스님은 56표, 기호3번 지홍 스님은 16표, 기호4번 대은 스님은 8표를 얻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은 개표 결과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편백운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편백운 스님은 당선 소감을 통해 “한국 불교태고종의 미래를 짊어질 막중한 중단사적 선택이 저에게 주어짐에 감사하는 한편, 가슴 끝까지 저러오는 무거움과 의지를 동시에 느낀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지금부터 종도들의 기대를 동력으로 개혁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겠다”면서 “금년도 수계득도 산림 일정을 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차기 정기중앙총회에서 총무원의 직제 개편과 3심제도 부활에 대한 중범마련 절차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중단임을 자부할 수 있는 정당하고 신뢰받는 중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종도들과 함께 새로운 중단의 희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다음주 초 삼원장 스님들과 함께 선암사로 중정예하를 예방할 예정이다.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서 대법회 봉행

삼광사 장학금 · 복지성금 전달, 단양군엔 쌀 5톤 지원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주최하고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 스님)가 주관한 국민화합과 행복 기원대법회가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봉행됐다.

이날 대법회에는 천태종 도용 중정예하, 총무원장 춘광 스님, 나중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충청북도과 단양군 관계자, 부산불교 관계자, 부산 삼광사와 정법사 불자 등 1만 3,000여명이 참석했다.

천태종은 단양군 소외계층을 위한 쌀 5,000kg을, 삼광사는 중단에 장학금 5,000만원과 복지금 5,000만원을 각각 전달,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대법회에서 도용 중정예하는 “청정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화합하여 하나가 되니 참으로 아름답구나. 남을 배려하고 늘 베푸는 마음이 자비로운 보살의 수행

이라. 깨달음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보시 바라밀이 제일바라밀이라. 배품며 정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들은 봄에 부지런하였고 더운 여름 땀을 많이 흘린 사람들이니 이 도량 의 대중들이여, 정성들인 기도를 온 법계에 회향하며 만중생의 안락과 행복을 위한 크나큰 서원을 세워 성불의 길 열어가니 참으로 거룩하구나. 뜨거운 신심에 제 불보살 호념하시니 모든 생명이 행복한 나라 불국정토의 실현을 위해 용맹정진 이어가거라.”라고 법어를 내렸다.

이어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운5월을 맞아 삼도 삼사 순례로 기도 정진을 발원하여 이 법석을 장엄해 주신 부산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과 동참 불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지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앞서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은 봉행사

에서 “오늘의 이 법회는 개인의 완성과 불국토 건설이라는 대승불교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보리심을 증장하고 그 공덕으로 우주법계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고 대법회 봉행 이유를 설명했다.

세운 스님은 또 “지극한 불심으로 광대한 원력을 세우는 것에서 천태법회의 보살행이 시작되는 것이기에, 이 법석을 통해 불퇴전의 정진을 다시 한 번 서원하여 무상보리의 씨앗을 길러가고자 한다.”며 “제불보살님과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크신 가르침을 따라 천태법회의 중지중통을 지극히 지켜 갈 것”이라고 서원했다.

나중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김강현 충북도 문화관광국장 대독)는 축사를 통해 법회 봉행을 축하하고, 이 법회를 계기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행복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한국이 좋아 33관음성지 순례길에 오른 일본인 순례자

2014~2017, 홀로 한국의 33관음성지 모두 순례한 일본인

2017년 7월 11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 스님)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33관음성지를 순례한 일본인 개인 순례자 나카무라 미에코(中村 美衣子)에게 회향증서를 수여했다.

불교와 사찰에 관심이 많은 미에코씨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방문한 뒤 한일교류 사이트를 통해 33관음성지를 알게 됐다.

미에코씨에게 33관음성지는 4년간 한국의 많은 문화를 접하게 해준 연결고리였다.

2014년 범주사에서 시작하여 2017년 3월 하동 쌍계사를 마지막으로 순례한 미에코씨는 “4년간의 33관음성지 순례를 모두 마치고 나니 스스로 혼자 이루어 낸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회향증서까지 받게 되어 뜻깊은 한해가 됐다. 33관음성지 인장첩을 새로 받아 한 번 더 33관음성지를 순례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화사업단장 수암 스님은 “이동수단이 편지 않았을 텐데도 외국인인 홀로 33관음성지를 모두 순례한다는 것은 보통



▲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회향증서 수여

의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나가무라씨의 한국여행을 지지하며, 언제나 사찰에서 머물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33관음성지 순례사업이 국내외 단체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개인 순례자까지 그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국을 찾는 개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33관음성지 관광안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통과 숙박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을 찾는 여행객과 순례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카무라 미에코씨는 현재까지 한국 여행을 위해 160여회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33개 사찰 여행 후기를 여행정보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http://ameblo.jp/suns.01/entrylist-3hml)에 빠짐없이 기록했다. 미에코씨의 순례 회향에 힘입어 더 많은 일본 관광객들의 한국 33관음성지를 순례길 희망한다.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니다

개천사 이희권 6/22 10,000
전세형 7/5 30,000
김위식 7/18 70,000

기르스승 해정 6/22 10,000
원봉 7/17 10,000
지선행 7/17 10,000

해정 7/18 10,000
덕화사 이상욱 6/28 10,000
이진승 7/11 10,000

동해사 탁상달 7/12 20,000
밀인사 정정희 6/28 5,000

법천사 김정숙 6/26 10,000
김정숙 7/11 10,000

법황사 박미경 7/18 10,000
벽룡사 양정현 7/4 10,000
양지현 7/4 10,000

권형민 7/4 10,000
사원명무기명
배도련 7/7 10,000

무명씨 7/14 10,000
김갑선 7/19 10,000
삼밀사 신말심 6/26 20,000

신막심 7/7 20,000
수인사 정순득 7/17 10,000

실보사 이순옥 6/28 10,000
실지사 정경자 6/21 10,000

황성미 6/27 10,000
조성우 7/3 10,000
정경자 7/14 10,000

박병성 7/14 20,000
운천사 무명씨 7/10 20,000
일원어린이집

김용미 6/26 10,000
하계희 6/26 50,000
구미자 6/30 10,000

자석사 조경탁 7/19 10,000
지인사 허성동 7/13 30,000

승효제 7/17 1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6/26 30,000
총지사 박정희 7/16 10,000
신용도 7/16 10,000

손경옥 7/17 10,000
혜정사 최영례 7/20 10,000
화음사 사원무기명 7/5 10,000

무명씨 7/10 10,000
무명씨 7/10 10,000
흥국사 지정 7/17 20,000

6월 21일 ~ 7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충지중 전 흥국사 주교 대관 대인사(大觀 大忍師) 열반

‘남은 인생 교화와 종단 발전에 헌신을 다하다’

불교충지중 원로 스승인 대관 대인사(세수 90세, 법납 45년)가 충기 46년 6월 30일 토요일 열반에 들었다. 불교충지중은 대관 대인사 영단을 충남 부여 장례식장에 마련했다.

영결 추선불사는 7월 1일 오전 8시 충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됐다. 법회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 100여명이 동참했다.

유가족 대표 박자승씨는 고결사에서 “산보다 바다보다 높고 깊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아 오리까”라며 부모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극락왕생을 서원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추도사에서 “평생

남에게 빛을 지고 살면 안된다며, 무엇이라도 배풀고 겸소한 생활을 하시며, 수행과 교화를 위해 매진하신 스승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스승님의 끝없는 보시 공덕의 삶은 후배 승직자의 표상으로 영원할 것입니다.”라고 큰 가르침을 떠나신 스승님을 추념했다.

1926년(丙寅)생인 대관 대인사는 1984년 충지중 중앙교육원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었다. 1987년 4월 항마급 대인수에 품서됐다.

전주 흥국사에 부임해 전북지역 교화에 전력을 다하시고 1996년 기로원에 진원했다.

충지중 사회복지재단운영 햇살어린이집 개원식 봉행

조은희 서초구청장 및 학부모 동참



▲ 햇살어린이집 개원식

서초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아파트 내 신축하여 불교충지중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서초구립 햇살어린이집 개원식이 7월 12일 오후 3시 열렸다.

충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인선 정사, 통리원 재무부장 원당 정사, 조은희 서초구청장 및 학부모 등 100여명이 개원식에 동참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에서 “충지중 사회복지재단은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유아 보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조은희 구청장님과 여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며 말했다.

이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학부모들과의 교육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그동안 서초구가 시행중인 어린이집 보육과 정책들을 설명하고 자녀 안심 보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 식전 행사로 교사들의 실로폰 합주와 노래 공연, 보육 어린이 동영상 상영이 있었다.

반포=김초량 기자

법장화 지수 1주기 추선불사

충기 45년 7월 12일 열반에 든 원로스승 법장화 지수의 1주기 추선불사가 서울 밀인사에서 봉행됐다.

추선불사는 7월 12일 오후 2시 밀인사 주교 법등 정사의 집공으로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과 유가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유가족 대표 박병우씨는 추모사에서 “벌써 1주기가 되어 법식을 갖추어 추선불사를 올리오니, 부모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극락왕생을 서원합니다”며 추모사를 봉독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에서 “평생 겸소한 생활을 하였고, 수행의 도구로 삼으셨던 법체마저 중생구제를 위한 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떠나신 법장화 스승님의 1주기를 맞아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으로 극락왕생 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스승님을 추념했다.

1927년(丙寅)생인 법장화 지수는 1972년 충지중 중앙교육원을 수료하고 승직에 들었다. 밀인사 주교, 중앙종회의 의장 등 종단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충기 46년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방생기금 전달

7월 19일 울산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기부



▲ 방생기금전달식

충기 46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서 조성된 방생기금이 7월 19일 울산 자재요양병원 호스피스 시설 확충 기금으로 전달됐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재)정토사관자 재회 울산 정토마을 요양병원 원장 능행 스님을 방문 충지중 교도들이 마련한 인간방생기금을 전달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불교계 호스피스 사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시는 스님의 자비행에 감사드립니다. 충지중 중도들이 방생기금으로 마련한 성금이 호스피스 병원 시설 확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며 방생기금 전달의 의의를 말했다.

정토마을 요양병원 원장 능행 스님은 “먼저 부처님의 자비공덕으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자비행의 정진으로 많은 노인들과 승려들이 편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며 정토마을 직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7면에 계속>

울산 실보사 교도 자녀 2017 입법고시 최연소 합격

교도 아들 이동현 법제직 최고득점 획득

입법고시를 목표로 공부한 끝에 최연소 합격에 법제직 최고득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이가 있다. 울산 실보사 교도 이철락 각자와 전정옥 보살의 자녀로 올해 만 21세의 이동현씨가 바로 그 영예의 주인공이다.

이씨는 울산제일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법과 관련된 공직을 하고 싶다는 꿈을 꿔왔다. 그가 ‘법’, 그 중에서도 ‘입법’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씨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저작권법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관련 분쟁을 국회가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보고 민의를 반영하는 입법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했다. 입법에 대한 관심을 ‘법과 관련된 공직’이라는 꿈으로 조금 더 구체화한 이씨는 성균관대 글로벌리더 학부에 입학해 법학을 공부했다.

꿈이 뚜렷했기에 다른 수험생들이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같이 준비하는 것과 달리 입법고시 법제직만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다.

고시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것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부터였다. 고시반에서 체계 공하는 PSAT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한 이씨는 2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휴학

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고시 준비에 돌입했다. PSAT 강의를 처음 들었던 때로부터 3년이 되는 올해, 이씨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입법사무원의 꿈을 이루게 됐다.

이씨는 평일에는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일요일은 무조건 쉬는 식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반복되는 일상은 때로 소소한 즐거움이 자꾸준히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일요일에 쉬기로 했기에 토요일 밤에 야식을 먹으며 다음날 마음 편히 늦잠을 자도 된다는 사실을 만끽하거나 쉬는 날인 일요일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했던 일들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인 합격소식을 듣는 날까지 그를 지탱하는 소소한 즐거움이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꿈을 이루기까지 그의 힘이 되어 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우선 수험기간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아버지, 어머니, 큰누나, 작은누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험의 기틀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균관대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법정 대정사 1주기 추선불사



▲ 법정 대정사 1주기

충기 46년 7월 19일 울산 실보사에서 지난해 열반에 든 법정 대정사의 1주기 추선불사가 봉행됐다.

실보사 주교 덕광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된 법회에는 전국의 스승 및 교도, 유가족이 동참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법정 대정사님의 극락왕생

과 오늘 추선불사를 준비해 주신 실보사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했다.

추선불사는 스승과 교도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서원과 부산·경남 만다라 합창단의 추모곡으로 마무리했다.

법정 대정사는 금강 같은 신심으로 수행과 교화에 매진해 온 종단의 큰 어른이다.

1934년(甲戌, 양력 35년 1월 15일)생인 법정 대정사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영문과를 거쳐 1982년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지송급 법사로 승직에 들어 1994년 밀인지 대정사에 품수됐다.

대동농원 최첨단 아로니아 가공 공장 준공

위생적인 가공을 통해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대동농원 경북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896번지
연락처 010-3537-3090
불교충지중 단음사 신도: 정점락 각자

아로니아 생과출시 1kg 1만원 (전국 무료배송)

지상 설법

불공과 회향



사감원장 안성 정사

“ 불공과 회향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한 가지는 실천하리라는 다짐과 서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짐과 서원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행할 때 참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달 17일에는 호국안민가원대법회를 열어서 49일간의 진호국가불공을 여법하게 회향하였습니다. 법회를 마친 뒤라 때늦은 감은 있지만 회향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향이란 자기가 얻은 공덕을 남에게 돌려 주는 일입니다.

즉, 보살이 여러 관점에서 보살행의 완성을 위해 정진한 다음에 모든 이에게 그 공덕을 돌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향은 무엇에 돌리느냐에 따라 보리회향·중생회향·진여회향으로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보리회향이란 좋은 일을 행하여서 공덕성취와 깨달음을 향해 똑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회향이란 대자비로써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진여회향이란 형상을 버리고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향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집이 필요한가 하면?

그것은 먼저 자신의 실천을 끝없이 행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갖는 서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회향의 대상인 이웃과 중생들의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쌓은 선근을 회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실천이며, 더 나아가 종교적인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회향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면?

회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듣고 있어 버리지 않고 열심히 닦는 것입니다. 즉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부터 열심히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육바라밀이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가 동참불공 할 때 마다 외우는 십선회향(十善廻向)도 좋은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고 계를 철저히 지키고, 인욕하며 정진하고 이를 통해 항상 마음에 선정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에는 지혜가 생긴다고 합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나 수행이 결국 지혜를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닦는 것에서 시작 되어야 하고 이것이 첫 번째의 회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회향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큰 불공이 있거나 중요한 서원이 있을수록 불공만 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남을 돕는 일을 직접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과 실천을 겸하여 자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고 회향입니다.

이것을 자리아타(自利利他)라고 합니다. 자신의 수행은 자리(自利)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이타(利他)가 됩니다. 자리아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으며, 새의 두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수행이라 할 수 있고 견실하게 공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고 우리는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도와주고 힘이 모자라면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일에 손수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서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진에는 진정한 보살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신하여 고통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향 가운데 가장 행하기 어려운 회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거나 그 고통을 듣기 위하여 내가 몸소 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열고자 노력하는 것도 불공이고 회향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이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자 회향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참불공을 할 때마다 외우는 십선회향이 정말 좋은 회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 보면, 정말 쉬운 회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십선회향(十善廻向)은 열 가지의 선행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겠다는 회향의 서원입니다.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열 가지의 업을 십업(十業)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열 가지의 선업(善業)을 십선업(十善業)이라 합니다.

십악업(十惡業)은 산 목숨을 죽이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사되고 음란한 행위, 거짓말, 두 말하는 것, 험악한 말, 꾸미는 말, 집착으로 일으키는 욕탐, 성내는 것, 사된 생각을 가리킵니다. 십악(十惡)의 반대어가 십선(十善)입니다. 십선(十善)은 열 가지 착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더욱 적극적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 십선회향입니다. 그냥 보살이 아니라 대보살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선회향은 단순히 십선(十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십선행으로써 얻어진 공덕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되돌려 준다는 더 큰 의미의 회향입니다. 하나를 제대로 실천하면 열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으로 머물러 있는 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불공에 임할 때나 불공을 마치고 회향을 할 때는 내가 반드시 한 가지는 실천하리라는 다짐과 서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짐과 서원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행할 때 참불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보살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참다운 불공과 회향을 발원합니다.

칼럼 지혜의 눈

보물(寶物)을 발견하고 나누는 삶

“언제 어디서나 보물 찾는 안목이 중요”

얼마 전 대학시절 동아리 동기생 모임에 다녀왔다. 지방의 한적한 번두리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며 함께 했던 옛 추억과 인생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오랜 세월 번치 않은 따스한 마음들을 느끼기도 했다. 이튿날은 사내 시터투어를 하며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도 둘러보았는데, 독일 작가가 기증했다는 보석 작품은 접착제를 쓰지 않고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만든 것이라 이채로웠다.

대개 어린 시절에는 보물섬을 찾아가는 이야기에 매료되기 마련이다. 정말 황금으로 가득한 보물섬이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뭔가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떠나보면 아무도 찾지 못했던 보물섬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다 좀 더 커서는 물질적인 보물보다 진정한 보물을 찾아보겠다며 꿈과 이상을 키우는 철학적 사고를 체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차츰 먼데 찾아 나서는 것이 웬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다. 어떤 보물이든 저절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계를 박차고 나가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는 지레 겁먹은 탓은 아닐까. 힘차게 도전해 보겠다는 패기와 용기를 잃고 꿈과 이상을 포기하며, 굳이 애써 특별한 보물을 찾을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만족을 찾으면 된다면 자위하게 된 것은 아닐까.

우리 주위에는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유사(類似) 보물들이 너무도 많다. 이른바 명품을 비롯해 부와 건강, 명예 등 이른바 세속적 행복의 대상들은 현실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특히 현란한 광고와 선전은 유혹의 힘을 발휘하여 그러한 환상을 강화하고 소비주의를 부추기기도 한다.

자유·평등 같은 이념이나 가치관, 종교 등의 정신적 가치들마저도 소비·병적 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나만 가지면 된다거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 젖기 일쑤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

리는 진정한 보물찾기와는 한참 멀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수요가 많 아질수록 값이 올라간다. 보물도 그 자체로 귀하다고 보다는 돈이 되니까 그걸 얻고자 앞다퉈 덤벼드는 사람들이 몰려들다보니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 뿐이다. 금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토착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신대륙을 침략한 유럽인들이 금을 찾아 광분하는 모습에 매우 놀랐다고 한다. 먹을 수도 없는 금을 왜 그렇게 가지려 하는지 몰라서...

중요한 것은 대상 자체보다는 대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이다. 같은 물건이라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보물도 되고 탐욕덩어리가 되기도 한다. 어떤 평범한 것이라도 보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모든 게 보물이다. 그런 사람에게 이 세상은 보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 가치 뿐 아니라 그 너머의 정신적 가치까지, 일체를 보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개발하고(上求菩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下化衆生).

불교에서는 가장 귀한 세 가지 보배로 불·법·승 삼보(三寶)를 꼽는다. 삼보는 어둠 속 뱃길을 알리는 등대처럼 인생항로를 헤쳐 나가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안내자가 된다.

특히 자성삼보(自性三寶)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진리의 존재로서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뜨거운 여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진정한 보물을 찾아 나날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김봉래
불교방송
불교사회인의
책임 실천운동
TF팀장 겸
기획위원



관세음보살 예찬문

관세음보살은 팔십 여만(八萬四千)의 관음. 자비로써 중생을 고통에서 구해준다는 관음(觀音)으로 불리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관세음(觀世音)과 보살(菩薩)의 합성어이다.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생애, 공덕, 교훈,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관세음보살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회향 편지

불교총지중 법장원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옴의 의미와 수행법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5

관음의 명칭은 관음·관세음·광세음·관세자재·관자재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이처럼 관음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원어의 번역상의 차이점 때문으로 한역된 경전 속에 등장하는 관음의 명칭이 시대별로 다르게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관음의 산스크리트어 원어는 Avalokita-svara와 Avalokita-Isvara의 두가지가 있다. 먼저 관음은 산스크리트어 Avalokiteśvara를 번역한 말로, ‘관자재, 관세자재’라고 번역한다.

Avalokiteśvara는 Avalokita와 Isvara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Avalokita는 ‘관하여 보는’의 뜻으로 구체적으로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관하여 보는’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Isvara는 ‘주관자’ 곧 ‘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Avalokiteśvara의 의미는 ‘위(하늘)로부터 아래(세간)를 관하여 보는 신’ 또는 ‘세간을 관건하는 신’을 뜻하고 있다.

또 다른 명칭으로 관세음을 ‘세자재’

즉 Lokeshvara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뜻은 ‘Loka(세계)의 Isvara(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관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주관자’로서의 성격

관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주관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세자재’, ‘관세자재’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을 갖고 있으며, ‘세자재’, ‘관세자재’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관음의 명칭을 ‘관하여 보는’을 뜻하는 Avalokita에 ‘음’을 뜻하는 svara가 첨가된 것으로 해석해서 ‘관세음’ 또는 ‘관세음자재’라는 명칭으로 번역한 것이다.

그리고 관음의 명칭이 경전의 번역 시기나 경전의 성격에 따라 관세음·광세음·관세자재·관자재 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의역되어 명칭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경전 번역 시기에 따른 명칭을 보면 4세기까지 이루어진 고역에서는 관음·관세음·광세음으로 번역하였고, 구마

라습에서 현장 이전까지 5,6세기에 이루어진 구역에서는 관세음·관음이 주류를 이루고 관세자재도 보이며, 7세기 중반 현장에서부터의 신역에서는 대부분 관

자재로 번역하고 일부는 관세음·관음으로도 번역되었다.

여기에서 구역에서는 관세음·관음으로 신역에서는 관자재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범본원어의 차이에서 기인 한 것으로 각기 다른 범본 「보문품」에서 Avalokitesvara와 Avalokiteśvara라는 명칭으로 각각 사용되어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본래 ‘음’을 나타내는 -svara의 명칭이 후에 인도 고유신인 Isvara(자재천)의 영향을 받아서 ‘자재’를 의미하는 -svara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역도 서역 구자본을 번역한

구마라습의 구역에서는 ‘관세음’으로 부르고 인도에 직접 가서 경전을 가져와 번역한 현장 등의 신역에서는 ‘관자재’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경전의 성격으로 볼 때에도 먼저 「보문품」에서는 고난과 액난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이 관세음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고뇌에서 해탈케 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관세음이 적합하고, 「반야심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공의 실천자로서 관자재로 불리는 것이 적합한 명칭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관세음과 관자재는 각각 충분한 의미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최초의 불교 신앙자 초왕(楚王) 영(英)

불교의 부처를 도교의 신선처럼 생각하여

중국의 민간 신앙인 도교와 순응하며 중국인들에게 불교가 수용되었다

전편에서 언급한 감무구법설과는 별도로 후한 명제 때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는 불교(佛敎) 초전(初傳)의 자료가 있다.

그것은 후한서 실려 있는 내용으로 후한(後漢) 명제의 부친인 광무제(光武帝)와 후궁 허씨 사이에 영(英)이라는 아들 즉 명제의 이복동생이 있었다.

그는 어머니 허씨와 함께 광무제의 총애를 받지 못하여 변방인 초(楚) 지방의 왕으로 임명 되어 중앙에서 멀리 밀려났다. 하지만 명제는 변방의 조그만 지방 초(楚)의 왕이 된 초왕영(楚王英)을 태자시 절부터 아꼈다.

어느 날 사람 사귀기를 좋아해 많은 빈객과 교류를 즐기던 초왕 영이 모반을 했다고 무고를 당한다.

명제는 초왕 영을 살리려고 사형을 당할 죄인도 비탄을 마치면 속죄할 수 있다는 칙령을 내린다.

이에 초왕 영은 명제의 속뜻을 알아차

리고 비탄 30필을 바치고 사면을 받게 되었다.

명제는 “초왕은 황노(黃老:황제와 노자, 이들에 의해 도가(道家)가 창시되었다고 함)의 미언(微言:뜻이 깊은 말)을 독송하고, 부도(浮屠:불타)의 인사(仁祠)를 숭상하며 결제(結社)를 3개월 동안 하고, 신과 맹세하여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뇌우침이 있을 것이다. 그 속(讞:벌금)을 돌려주니 이포세(伊蒲塞:우바세)와 상문(桑門:사문)의 성찬(盛饌)을 도우라.”(<<후한서>>권42, 초왕 영전은 조칙을 내렸다.

이것에 의하면 초왕 영이 도교의 황제(黃帝:온갖 귀신을 부리는 신비적인 존재자)와 노자(老子) 그리고 부도(浮屠:불타)를 동시에 숭상했던 것과 초왕 영이 어떠한 불교의식을 행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제가 초왕 영에게 우바세와 사

문에게 공양을 하라고 한 것은 후한(後漢)의 조정이 국가의 상층 지배계급에게 유교나 황노의 가르침과 함께 외래종교인 불교를 신앙하는 것을 공인했던 증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초왕 영이 사문에 게 공양했다는 것은 서역의 외국승이 이미 후한의 대도시 장안과 낙양뿐만 아니라 초왕 영이 다스린 중국의 변방인 초(楚) 지방까지 와서 불교의 선교활동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초왕 영이 황노와 부처를 함께 숭상한 것은 부처를 도교의 신선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교가 당시 중국의 민간신앙인 도교와 융화하고 순응하여 쉽게 중국인들에게 수용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석 달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신과 맹세를 했다는 것은 초왕 영이 불타를 신으로 모시고 복을 바라는 현세 이익과 불로장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종교로서 불교를 신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왕 영의 불교신봉 형태를 비추어 보면 중국불교 전래초기 중국인들은 불교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부처와 신선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불교와 중국의 민간신앙 도교를 동일시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처를 신과 같이 생각하여, 부처에게 기도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복신앙이다.

부처를 길흉화복을 주재하며 현세 이익과 불로장수를 줄 수 있는 주체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에 불교가 수용되는 최초의 신앙내용인 현세이익을 위한 기복신앙은 이후 중국불교사에서 일관하는 태도가 되었고 중국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안국불교종단협의회와 외원종단 탐방

진언밀교의 새로운 출발, 밀교의 기본으로 돌아가다.



▲ 진언종 박혜천 대종사

진언종의 초조는 신라의 해통화상이다. 해통화상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선무외삼장에게 진언밀교를 전수 받고 665년(문무왕 4년) 귀국하여 해통에 진언밀교를 흥전하여 진언종 초조가 되었다. 신라 이래 고려까지 수많은 밀교 대덕이 배출되고 진언 밀교법에 의한 작단행법이 설행되었으나 조선조의 억불에 의해 통종이 쇠잔해지고 말았다. 해방 후 해봉(海峯, 孫元道, 1903~1967)대종사가 현 시대의 진언종은 재가방편임을 깨닫고 1954년 교화도량으로 울산에 대한불교참회당을 개설하여 금일 진광원(眞光院)의 기초를 다졌다. 이후 대한불교진언종 포교원, 대한불교진언종 중무원 등으로 문교부에 등록했다가 1972년에 대한불교진언종으로 정식 등록했다. 현재 총무원장 혜천 대종사가 진언종을 이끌고 있다.

진언종은 대일여래불을 본존으로 하며, 금강계와 태장계의 만다라를 표상으로 하여 밀교불교의 수행의법에 따라 다라니와 육대(지수화공, 공, 식)를 체(體)로 하고 사중만다라(大, 三昧耶, 法, 磨)를 상(相)으로 하고, 삼밀을 용(用)으로 하여 체의 이구(理具)와 상의 가지(加持)와 용의 현득(顯得)으로 수행의 기본



으로 하여 즉신성불의 성불문을 개시하고 말법시대의 재가수행으로 자아의 이고득력과 즉신성불의 행원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온과 국가안녕의 기원을 중지로 한다.

소의경전은 『대일경』, 『금강정경』, 『소실지경』, 『소과호동자경』, 『보리심론』, 『석마하연론』이다.

진언종의 본산은 부산 보국사이고, 총본산은 충북 괴산의 천용지사이다. 지난 2010년 취임한 현 대종사 박혜천(朴惠天)스님은 우리 불교(佛敎)가 시대적으로 부흥하기 위해 진언종(眞言宗)의 혁신(革新)을 이끌어 냈다.

종단 혁신의 큰 골자는 재가방편을 수행도량으로 하는 재가불자 체제에서 출가 승려 중심체제로 탈바꿈 시킨 것이다. 이로써 진언종은 밀교 출가승려 종단으로서 용맹정진(勇猛精進), 불법수행(佛法修行)을 원칙으로 진호국가(鎮護國家), 중생구도(衆生求道)를 목표로 하는 진언밀교(眞言密敎)의 부흥에 원동력이 되었다.

밀교는 대승불교의 진수이다. 세상의 모든 중생의 마음을 모두 들어 주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의 발로를 진언종의 변화된 모습에서 기대한다.



그때 그시절

총기2년(1973) 8 31 전주선교부 설단불사(設壇佛事)봉행	총기4년(1975) 8 11 관정수계법요거행(전법관정) 토리원삼매야(三昧耶)계단에서 스승관정수계
총기7년(1978) 8 30 결연관정수계(삼매야계단설치) 경남교도의 결연관정수계식을 정각사에서거행 수계자:110명	총기7년(1978) 8 31 제17회원의회개회 정각사에서개회,다음안건을심의함 1.법륜회칙 2.유신건설회사정관 3.인사처내규

유 물 로 보 는 밀 교



▲ 군위삼존석굴석조비로자나불좌상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 있는 불상으로 현재 대좌(臺座)와 광배(光背)가 없어진 상태다. 머리에는 작은 소라 모양의 머리칼을 붙여 놓았으며, 그 위

에 있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은 평평하게 표현하였다. 볼에 살이 올라 풍만한 얼굴은 길게 늘어진 두 귀와 함께 양감을 느끼게 한다.

옷은 양 어깨를 감싸 입고 있는데 앞가슴을 넓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손은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감싸 쥐고 있는 모습으로 일반적인 비로자나불이 취하는 손모양이다.

각 부분의 모습에서 양감을 느낄 수 있으며 형식으로 보아 9세기 말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8. 불퇴금륜수(不退金輪手) 진언



옴 서나미자 사바하

만약 지금의 몸으로부터 부처의 몸을 이루기까지 항상 보리심을 지니고 물러나지 않기를 원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호국안민기원대법회



하반기 49일 조상불공 및 호국불사 원만 회향

1978. 10. 17. 7월15일 해탈절(~)을 수륙대재불사로 봉행
1983. 7. 16. 각 교구별 방생대법회 봉행
1987. 7. 16. 경남북 교구 합동호국안민 방생대법회
1987. 7. 17. 경인지구 합동호국안민 방생대법회
1992. 6. 6. 방생불사에 관한 중령유시로 인간방생불사 시행
2001. 6. 13. 인간방생과 기금조성 (목적: 양로원건설, 복지기관운영)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시여!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어 일체중생들의 괴로움과 고통을 멸하여 주시고,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하여 영원한 안락을 누리게 하소서.

위없는 진리로써 영원하시고, 가없는 자비로써 자재하신 부처님!
오늘, 정진과 참회의 불공으로 한량없는 복덕과 복락을 얻고자 하오니 정법의 지혜와 자비를 내려 주소서.

저희들이 올리는 이 공양과 서원이 중생들의 무명을 밝히는 광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체 영식의 왕생극락을 이루게 하여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극락세계 장엄도량아미타부처님이시여!
구품으로 중생을 제도하사 위와 복덕이 다향이 없사오니 저희들의 지심 발원을 접수하여 주소서.

탐진치로 지은 죄를 참회로써 소멸코자 하오니, 원컨대, 일체 중생들의 생사 고통 여의옵고 영원한 안락을 구족케 하소서.

원하오니, 이 공덕이 시방세계에 널리 미쳐져서 모두가 해탈을 얻게 하시고, 서방정토 왕생극락 연화세계 이르게 하소서. 두 손 모아 지심으로 발원하나이다.

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나무 극락도사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훎'.

총기 46년 7월 17일
교도대표 서울경인교회회장 만덕장 합장



방생의 참의미를 되새긴 인간방생의 길을 모색하다



일시 : 총기 46년 7월 17일 월요일
장소 : 단양 실내체육관

정통밀교 종단 불교총지중은 해마다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를 회향하고 호국안민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총기 46년 7월 17일에 봉행된 이번 대법회는 방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무분별한 어류 방생을 하지 않는 대신 방생기금을 모아 불교계 공익 사회복지법인인 정토마을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전달했다.

방생(放生)이란 죽음에 직면한 생명체를 살려주는 의식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不殺生戒)를 가장 중시한다. 방생(放生)은 불살생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다.

는 것이다. 즉 살생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죽게 된 생명을 구해냄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의 불살생계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생은 불자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범망경>에 '항상 방생을 행하고 남도 방생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세상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구호하여 괴로움에서 풀어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방생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실천 덕목인 것이다. 그러면 방생을 하면 어떤 복덕이 있는가. 첫

째는 방생하는 이와 그 가족의 수명이 길어진다. 둘째는 병고액난에 시달리는 중생이 완쾌된다. 셋째는 마음이 맑아져 지혜가 솟아난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3월 3일과 8월 15일에 방생회라는 의식을 행하여 왔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수시로 행해진다. 방생 본래의 뜻을 살린 참다운 방생 이타(利他) 방생을 하여야 하겠다.

방생을 하면 이미 그 공덕이 쌓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짓게된다. 왜냐하면 불성(佛性)의 종자를 보호하고 성불의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자들은 본래 방생의 의미를 되새겨 중생구제라는 수행

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행하며 이를 멀리 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의 여건들을 제거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방생이다. 이웃에 소외되고 억압받는 중생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 방생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불자가 실천해야 할 참 진리의 길인 것이다. 불자들은 방생을 통해 모든 병고액난에서 벗어나고 끝없는 반야지혜가 솟아나도록 방생을 하고있는 것이다.



향, 방생을 통해 편견과 욕심을 버리고 해탈하는 법회



방생기금, 공익사회복지법인 정토마을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기부

7월 19일 울산 자재요양병원 방문해서 기금 전달



불교총지중은 7월 19일 방생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서 조성된 방생기금을 불교계 공익 사회복지법인인 정토마을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요양병원에 1천5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호스피스 시설 확충 자금으로 쓰여 질 예정이다

동리원장 인진 정사는 (재)정토사관 자재회 울산 정토마을 요양병원 원장 능행 스님을 직접 방문하여 인간방생 기금을 전달하고 시설을 돌아보며 관객자들을 격려했다.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병원으로 2013년 8월에 오픈 하였다. 난치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보살 피고자 발원한 후원자들과 봉사자 그리고 의료인들이 함께 사회 공헌하는 병원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자비정신에 따라서 난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병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정토마을 후원가족들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승가병동을 특별히 운영하여 질병에 노출된 승려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승가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진료와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돌봄이 가능하도록 중단과 협의 하여 스님들께서 질병에서 빠른 회복과 재할이 가능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

이 곳은 20년간의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돌봄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최선의 삶을 다한 후 죽음의 여정을 통해서 또 다른 꿈을 실현 할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특히 티벳 밀교 경전 '사자의 서'가 제시한 죽음 이후의 여정을 가는 영가들의 해탈을 돕고 있다.

자재요양병원 연혁

- | | | | |
|---------|---------------------|---------|------------------------|
| 20146월 | 원화의료전문자재요양병원개원 | 200510월 | 울산시울주군상북면양동리에건립부지1만평미련 |
| 20137월 | 원화의료전문자재요양병원오픈 | 20034월 | 원화의료전문자재병원건립을위한천일기도봉행 |
| 20115월 | 원화의료전문자재병원기공식 | 200010월 | 불교계최초독립형호스피스 정토마을의개원식 |
| 20093월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불학기개강 | 20001월 | 정토마을호스피스센터오픈 |
| 20091월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설립 | 19975월 | 정토마을호스피스센터설립모금운동추진 |
| 20081월 | 자재병원건립모금운동시작 | 199510월 | 불교봉사단체회원15명의구성원으로자비회창립 |
| 200710월 | 임상인력양성교육기관마하보디교육원개원 | | |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 경

계(戒)와 밀교수행 (1)

계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의미

계의 본질, 본체를 계체(戒體)라 하는데, 계체가 없으면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불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를 받아야 하고, 승(僧)이 되는 과정에서 필히 구족계(具足戒)를 받도록 되어 있다.

대개 신도는 삼귀의(三歸依), 오계(五戒), 팔계(八齋戒), 십선계, 십중대계, 48경계를 받아 지니고, 승(僧)의 경우는 사미 10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수지하게 된다.

계는 반드시 수계의식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로써 수행자는 계의 본질인 계체(戒體)를 갖추게 된다. 계체를 지님으로써 계를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결의와 힘을 지니게 된다.

이를 계력(戒力)이라고 한다. 계체가 없으면 계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수행자가 승가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의지와 결의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계체는 지키려는 의지와 힘을 말하는 것인데, 잘못된 일을 막아주고 나쁜 것을 그치게 하는 힘이다. 방비지악(防非止惡)을 의미한다. 이것이 계의 본체를 가리키고 있다.

밀교에서 계체는 보리심(菩提心)이다.

밀교에서 계체는 보리심(菩提心)이다. 보리심이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發菩提心)이라 한다. 이를 줄여서 발심(發心)이라 한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보리심이라 하는 것은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 오던 보리심에 대한 해석이자 입장이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깨달음 그 자체를 보리심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차체(生起次第)라 하고, 깨달음 그 자체의 마음을 구경차체(究竟次第)라 설명하고 있다.

이 양자를 배대시킨 것이 태장계만다라와 금강계만다라이다. 여기에는 중생이 부처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차체가 들어 있고, 또 깨달음의 경지, 즉 부처의 입장에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고 교화방편으로 접수하는 방편이 함께 들어 있다.

이것이 만다라의 세계이자 교설이다. 이러한 교설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일경』과 『금강정경』이다.

이들 경전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계율은 보리

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보리심을 계체로 삼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으니 『대일경』 「입전언문주심품」에 나오는 삼구(三句)의 법문(法門)이다.

밀교의 진언수행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법설은 ‘보리심을 인(因)으로 하고, 대비(大悲)를 근(根)으로 하며, 구경(究竟)을 방편(方便)으로 한다’는 구절이다.

선무와 삼장은 『대일경소』에서 이를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보리심은 종자요, 대지비심은 뿌리이며, 구경방편은 잎과 꽃, 중국에는 열매라고 비유하였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종자가 좋아야 하고, 뿌리가 튼튼해야 하는 법이다.

그와 같은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견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다. 썩은 종자, 약한 뿌리로는 싱싱한 잎과 과즙이 풍부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수행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진언행자는 보리심을 종자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일경』에서는 이 보리심에 대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리심은 밀교의 수행에서 중요한

계 다루어진다. 보리심은 수행의 교설로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전개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戒)다. 그래서 밀교의 계를 발보리심계(發菩提心戒)라 하고, 달리 삼매야계(三昧耶戒)라고도 한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다시 말해서 평등해지는 수행이라 하여 삼매야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삼매야라고도 하는데, 이는 삼삼평등을 의미한다. 중생의 삼밀과 부처의 삼밀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평등해지는 것이다.

삼매야의 평등, 본서, 제장, 경각의 네 가지 뜻 가운데 하나로서 평등을 가리킨다.

계와, 삼밀수행, 자문(字門)과 관법(觀法), 만다라 행법 등을 통해서 불(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므로 삼매야는 곧 삼밀이요, 계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전 속의 모든 교설과 수행방편이 곧 삼매야의 법이며, 계이며, 보리심을 증득하는 방편들이다.

밀교의 계는 보리심계(菩提心戒)로서 사중금(四重禁)과 십중금(十重禁)이 있다.

보리심을 증득하는 수행으로서 아자(阿字) 수

행이 설해져 있고, 계로서 사중금(四重禁)과 십중금(十重禁)이 언급되어 있다. 총지종에서 사중금은 신도가 받으며, 밀교승인 아사리는 사중금과 십중금을 모두 수지한다.

사중금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출가수행자가 지켜야 하는 네 가지의 중요한 계율을 가리킨다. 계율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죄이다.

살(殺), 도(盜), 음(淫), 망(妄)의 네 가지를 말한다. 이를 사바라이(四波羅夷), 사중죄(四重罪), 사중금(四重禁), 사중금계(四重禁戒)라 하며, 이를 범하면, 불공주(不共住)라는 벌칙을 받게 된다. 다시는 계를 받을 수 없다. 추방, 즉 멸민을 당한다.

그러나 밀교에서 사중금은 이런 것이 아니다. 밀교에서는 살·도·음·망의 네 가지가 단지 투란차[미수죄]에 불과하며 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투란차는 1명의 스승 앞에서 참회만 하면 면죄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비해 밀교에서 사중금(四重禁)이란 『대일경』 「구연품」에 삼세무장애지계(三世無障礙智戒)를 설하고 있는 것으로, 중죄로 삼고 있다.

그 사중금이란 ‘정법을 버리지 않고, 보리심을 버리지 않으며, 일체법을 아껴거나 인색하지 않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중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강제적 율법성을 지닌 계율이라기 보다 종교적 이념이라 할 수 있으며, 수행의 정신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서 십중금과 기타 밀교의 계율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미세회에서 미세유가로



정성준 교수
동국대 티벳대장경
역경원 선임연구원

인도불교는 4세기중엽부터 12세기에 이르는 동안 방대한 밀교경전과 주석을 남겼다.

대승불교의 역사는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보는데 그 것은 중생들이 모두 해탈할 때까지 마지막에 남아 성불을 이루는 보살의 서원이다.

보현행원으로 알려진 보살의 원력은 부파불교 시대에 찬술된 불전문학에서 그 원원을 찾아볼 수 있다.

붓다의 제자들은 스승의 전생에 가탁해 자신들이 이해했던 중생구제의 원력을 전기 형식으로 남겼다.

아라한이 해탈 이후 여전히 남겨진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보살은 중생구제를 위해 고의로 윤회한다고 주장하여 훗날 대승불교운동의 불씨가 되게 하였다.

「반야경」과 「화엄경」에 설하는 일체지는 붓다가 해탈신인 법신뿐만 아니라 보신·화신을 성취함으로써 정도와 육계의 사바세계에 신변을 보이는 능력이다.

「대일경」과 「진실섭경」의 일체지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진실섭경」의 금강계만다라는 성신회와 삼

매야회를 비롯해 미세화·이취회 등 12회의 부속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신회로부터 항삼세회에 이르는 연차적 관법은 석존 성도의 결정적 계기가 된 12지연기의 순환에 해당된다.

금강계만다라의 성신회는 붓다가 5지를 구족함으로써 법신으로부터 중생구제의 신변을 나누는 일체지의 수습과정이 세밀한 상징적 표현으로 축약된 것이다.

밀교의 아사리들이 보이는 5불의 보관은 해탈신과 중생신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중생을 구호하는 대일여래의 일체지지의 표상이다.

금강계만다라의 삼매야회는 붓다가 중생구제의 원력을 수용해 의식을 깨우는 최초의 찰나이다.

미세회는 무형의 의식이 육체의 경계를 수용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이취회는 육체의 감각영역과 의식이 외계사물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금강계만다라의 미세회는 인도 후기밀교의 대표적 수행체계인 미세유가(微細瑜伽)의 어머니이다. 금강계만다라는 밀교의 역사보다 더 오랜 불교수행의 과제를 끌어안고 탄생하였다.

붓다시대부터 수식관과 사념처관을 담았던 제자들은 의식과 호흡, 육신을 지탱하는 명력(命力)이나 풍(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설일체유부는 육신의 탄생과정을 연구하여 중생의 무명식이 육신의 감각과 물리적 소재들을 수용하는 과정을 이론화했다.

대승불교의 유식학과는 의식과 명(命)·풍(風)의 관계로부터 붓다가 보신과 화신을 구현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종가빠는 「비밀도자체론」에서 유가자는 풍과 풍이 순환하는 맥(脈), 명이 일으키는 땀모의 생명불을 미세유가를 통해 수습한다고 하였다.

지관(止觀)은 미세유가의 기초가 되어 미세유가의 집중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밀교수행은 불가능해진다.

이를 기초로 유상(有相)유가라고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스승들은 「원만한 상(相)을 현현하는 것은 약간의 지혜를 조금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밀교수행 가운데 무상(無相)유가가 해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유상유가는 유가자의 육신을 번뇌

없는 청정신으로 이끌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중생구제를 위해 정도를 구현하여 신변을 보이는 기초가 된다.

현대과학은 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 조금씩 지식을 쌓아가고 있지만 생명탄생의 비밀 앞에서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특히 생물학자나 생명공학학을 다루는 이들이라면 불교는 흥미로운 과학적 지식으로 수없이 채워져 있을 것이다.

불교는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의 합리적 사유와 타당성에 입각한 결론의 도출과정을 지지한다.

인도 후기밀교시대에는 인간의 진리에 대한 한계 없는 탐구와 도전의 시대였다. 외계의 가치보다 의식의 가치가 앞섰다고 가르친 분은 석존이었고 석존이 남긴 가르침은 밀교연구의 단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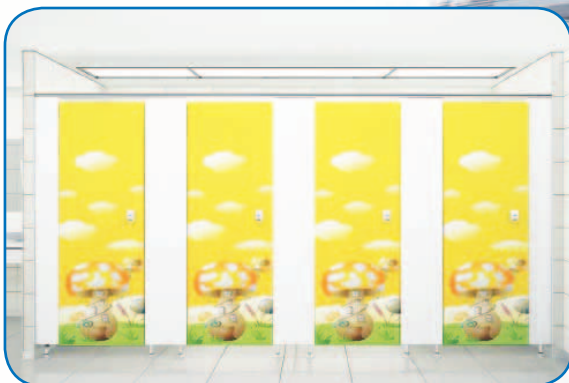
천오백여년이 넘게 연구된 방대한 후기밀교시대의 단편들은 여전히 연구를 기다리는 미답의 개척지이다.

*가탁:자신의생각이나감정을사물에반영하여 나타냄

쾌적한 주거환경과 신개념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생산에서 판매,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

- ♣ 신양큐비스는 쾌적하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인테리어 전문 기업입니다
- ♣ 큐비클 생산/ 판매/ 시공 전문 기업
- ♣ 학교, 휴게소, 상업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 대상 건물의 화장실 칸막이 전문업체



화장실 내부 칸막이(견본)

『신양큐비스』



대표 김한옥 (성남법천사교도)

연락처 010-8953-2304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36-5

Tel. 031)355-6961~2

동해중 소식

불교 어머니회(반야회) 탐방기



▲ 동해중 불교 어머니회

불교의 시작과 끝은 지혜와 자비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심은 세상의 모든 장애까지도 사라지게 하는 묘법을 가지고 있는 실천 명약이다.

이러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회원 상호 간에는 친목을 도모하고 불법(佛法) 생활화를 통하여 지역과 학부모 사회에서 모든 생활에서 모범이 되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으로 삼아 스스로 올바른 심성과 신행활동으로 학부모로서 자녀야 할 품성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본 회원들은 학교일에도 매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의 다양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모임이다.

반야회는 동해사의 법선 정사를 비롯한 학교장(탁상담)과 교감(김재근) 및 담당교사(김진화)의 열정으로 조금씩 조금씩 파릇한 새싹이 자라듯 죽순처럼 성장해 가고 있다.

설립 당시 열 손가락 미만인 회원이 이제는 회원수가 60여 명에 이른다.

반야회는 회장인 조미정(3년 김태관

어머니)과 총무 정미경(2년 황보석현 어머니)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법선 정사의 수준 높은 설법과 학교장의 불교와 문학과의 상관관계 특강과 교감의 불교 학 및 상담전문가로서의 학부모와 자녀와의 소통력 향상 특강, 외부 인사의 초청 강연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야회는 이외에도 법회와 신행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전국 투어 산사 순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본 산사 순례는 동해중학교 교사들과 함께하는 행사라 평소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공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평소 교사와 학부모간 협조사항이나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등도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라 매우 유익하고 의미있게 운영되고 있는 행사이다.

이밖에도 성격유형검사(MBTI, 동해중 교감 김재근 주관)를 통한 학생과 학부모간 성격과 유형 파악을 통해 학생

과 학부모 간 갈등 요인을 최소화 하고 상호 이해를 통한 소통력 향상으로 학부모와 자녀 간 유대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단주 만들기 행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주 만들기 시간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수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알 한알 단주를 깨면서 가족애와 부처님 전에 다가가는 수행으로 삼고 있는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이다.

이 행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마음의 다섯 가지 장애를 끊고 모든 사소한 번뇌도 제거하며 갈애(渴愛)의 허물을 끊는 소중한 시간으로 꾸며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반야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해중학교 학교장은 학교와 반야회와의 소통력 강화는 물론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보다 심화된 총지중 중단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불교 행사를 통한 소속감 고취 노력, 불교 교양도서 읽기를 통한 부처님 더 알기 심화 교육, 저명인사 초청 강연을 통한 자기 개발 노력 등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老-老케어 11월부터
부양의무제 제외

‘자녀 노인’이 90세 전후의 ‘부모 노인’을 돌보거나, 노인이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면 올해 11월부터는 부양의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용도의 예산 490억원이 포함됐다”며 “11월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7월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65세 노인이 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월 513만 원·4인 가구 기준)을 넘으면 자신의 부모 노인 혹은 중증장애인 자녀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사회 고령화로 노인(老老) 부양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90~100세 전후의 노인 부모가 가난해도 65세 이상의 노인인 자녀가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이들의 부모 노인이 나 중증장애인 자녀의 소득만 따져 기준(1인 가구 49만 5879원 미만)에 부합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증장애인(1~3급 장애 판정)이거나 중증장애 자녀를 둔 노인가정도 이런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소득하위 70%여야 한다. 넉넉한 재산이 있는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가지 기초생활급여 중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약 57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지원 대상이 되면 3~7년 주기로 집수리 혜택을 본다. 세입자에게는 가족 수를 고려해 임차료 일부를 지원한다. 생계와 의료 급여는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가 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 가구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우리가 힘껏 껴안을 ‘共業衆生’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열악한 처우는 그동안 사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회자됐다. 사회적 약자로 꼽힌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가슴 설레게 만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불교계도 2015년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사회노동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KIX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강원도 원주시로 초청해 산사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 건강과 권익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OECD 한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나라 임시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미국 다음으로 높다. 정규직 가구 소득이 비정규직 가구 소득보다 약 49% 높은 수준으로, 가구소득의 차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55~59세 가구주연령 집단서 가장 큰 격차(88%)를 보인다.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

한 상태에서 연공급 임금체제로 정규직서 밀려난 중고령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중이기 때문이다.

OECD는 노동법, 법원 판결, 상업적 관습, 사회 관습, 노동조합 등에 의해 보호받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줄일 것을 권고하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조선 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해 노조와 근로자들이 강력 반발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큰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당장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전락할 구조 조정 대상 근로자들의 입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용역 외주화 등으로 대체하려는 경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기 변동의 충격을 하청업체나 협력사에 전가하려는 원청사의 횡포 등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분절화 정도가 심한 생산물 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돼야 한다. 정규직 중심의 이기적 노동운동, 재벌 중심의 경제력 편중 등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전가보다는 궁극

적 해법을 찾기 위한 관계 이해 집단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전환이 예상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단순노무직 또는 숙련기능직 노동자들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모든 공공기관서 비정규직을 없앤다면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없앤다면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기준을 정해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경험은 중요한 직무의 특성상 다시 사람을 뽑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비정규직 대책을 일부에선 역차별이라고 말한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노동자들의 무임승차라 말하고, 수년간 공부하며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되, 기존 정규직 신규채용 절차에 따르게 공개 채용을 해 다시 정원을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그래야만 공정성이 담보되고, ‘노력과 보상이 비례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본질에서 ‘역차별’, ‘무임승차’ 논란의 출발점은 사실



김주일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장

관계에 대한 오해보단 비정규직에 대한 왜곡된 시각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차별과 무임승차란 말은 자격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볼 때 쓰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불안에도 묵묵히 일터를 지켜온 노력’이 ‘스펙 쌓기와 채용시험 준비에 쏟은 노력’보다 못하다는 전제 아래 쓸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이다.

차별을 만드는 건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자신의 손해로 받아들이는 이기심과 보상 심리라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논란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비판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사항은 정부서 그 어느 한 쪽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다. 열악한 근무 환경부터 바뀌야 한다. 그리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도 함께 치유해 줘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분명 우리가 힘껏 껴안을 ‘共業衆生’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1 보건복지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일 : 2017년 9월 4일	5 법무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시행일 : 2017년 6월 3일
2 고용노동부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6 법무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일 : 2017년 5월 30일
3 국세청 경차 유통 구매카드 2개사 추가(롯데·현대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 가능 시행일 : 2017년 9월	7 환경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시행일 : 2017년 8월 9일
4 병무청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시행일 : 2017년 9월	8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시행일 : 2017년 7월말

동화구연지도사란?



교훈이 담긴 다양한 동화를 입체적인 음성언어로 들려주어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며, EQ와 IQ를 길러줌과 동시에 동화를 수업 매체로 통합적인 교과수업을 이끌어가는 전문지도사의 의미합니다.

꿈 많은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나 현대동화, 그림책 등 좋은 문학작품을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력과 언어발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동화구연지도사는?

동화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역입니다.

나이,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동화구연지도사!

아이들을 대하는데 흥미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

배울수록 자신감이 생깁니다.



India Road

단비의 인디아 로드 2



▲ 인도의 기차역



▲ 델리기차역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 기차안에서 만난 엄마와 아기

국도가 광활한 인도에서 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미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다. 혼잡한 인도의 기차역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지각색의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열차의 연착은 노숙 행렬은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특히 대도시가 심한 편이다. 어렵사리 기차에 올라타면 이번엔 긴 이동시간과 짐을 살펴야하는 상황이 여행자를 긴장시킨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짐을 기둥에 잘 고정시켜 놓으면 이윽고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부터는 비록 낯설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차 여행을 즐기는 편이 좋다. 나의 경험상 인도의 기차는 생각보다 친절했다.

기차 안에서는 많은 인도인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고 간식을 파는 수 많은 상인들로 인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특히 기차 안에서 마시는 짜이(인도식 홍차) 한 잔은 심신이 지친 여행객을 위로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 편리한 비행기 이동도 좋지만, 역시 인도에서는 기차 여행을 빼 놓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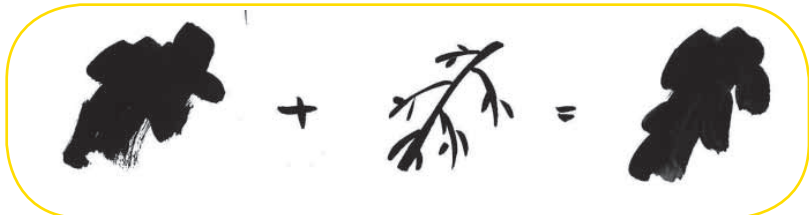


▲ 기차안에서 마시는 짜이 한잔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⑤

梅 蘭 菊 竹

3. 잎맥 그리기



4. 줄기 그리기

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연하게 그리고 힘차게 그린다.



덕광(실보사주교)
울산미술대전
신라미술대전
경남미술대전
한국화부문수상

불/교/설/화

사나운 말이 명마가 된다



설화: 조귀자
삽화: 김홍균

석존께서 사뭇타국의 기원정사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설법하고 계셨을 때의 일이다.

어느 곳에 한 사람의 장자가 한 마리의 명마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명마는 아니었다.

전에는 성질이 사나워서 가까이 가면 물어뜯고, 사람이 타려고 하면 앞발을 들거나 뒷발질을 해서 길들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일단 뛰기 시작하면 길은 제쳐놓고 미친 듯이 달려서 논, 밭, 냇으로 뛰어들고 벽이나 담에 부딪치는 처지 곤란한 사나운 말이었던 것이다.

주인인 장자도 이제는 미운 마음이 들었다. 험것 채찍질을 하고 먹이와 물도 안 주기도 했다. 하지만 말은 이렇게 많은 벌을 받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서 그저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에 발버둥질만 칠 뿐이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안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정신 없이 잠이 들었을 때 어디서인지 하늘 한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에게 순종하면 괴로움을 당할 까닭이 없다”

이 소리를 듣고 비로소 마음의 눈을 뜬 말은, 다음 날 주인이 말을 타려고 하니 말이 여드때와 다르게 양전해져서 순순히 안장을 걸치고 주인이 말고삐를 잡는 대로 동서남북으로 달리고, 말을 잘 들었다.

주인은 맛있는 먹이와 물을 주었고 금방 기운을 회복하여 몸이 튼튼해져서 천하의 명마가 되었다. 이 말은 그 후, 두 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그런데 이 망아지도 성장함에 따라 성질이 거칠었다.

제멋대로 뛰고 뒹굴고 고삐를 끊고 하여서 주인은 또 채찍으로 때렸지만 자기의 행동을 고치지 않으므로 주인은 먹이를 안 주어 허기가 지게하고 겨우 썩은 풀과 흙탕물을 조금 주었다.

망아지는 주인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

하고 원망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살며시 어미 말에게로 가서 하소연을 했다.

“주인은 어째서 우리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안주고 굶기면서 간혹 준다는 것이 뱀새나 썩은 풀과 입에 델 수도 없는 흙탕물 뿐입니다. 게다가 뼈가 부러지는 듯한 매질을 당하는 아픔은 이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서 편안히 보고만 계시니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이 괴로움을 살펴 주십시오”

자식들의 원망어린 말에 어머니는 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며 타이려 주었다.

“그것은 모두 너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다. 주인님이 고삐를 잡고 안장을 놓아 주시면 조용히 타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명령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너희들을 귀여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것인데도 너희들은 조금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꼭 이 어미 말대로 해 보아라.”

망아지들은 다음 날부터 어미 말의 충고대로 양전해져서 주인 뜻대로 움직였으므로 장자는 대단히 기뻐하여 어미 말과 똑같이 충분한 음식, 물과 편안한 잠자리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어미 말과 새끼 말은 지극히 안락한 날을 보내게 되었다.

말은 중생(衆生)이다. 장자는 부처님이다.

중생인 말은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움직여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모르므로 장자인 부처님은 여러 가지로 법(法)을 설교하셔서 오계(五戒)와 십선(十善)의 체적을 드시어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으로부터 중생들의 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자각(自覺)을 갖는 사람도 또한 이 명마가 되는 과정을 밟아서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하게 된 것이다.



용인 3군사령부 법당 / 5포 7포



계룡시 목조건축 행불선원 / 이원공



곤지암 회향선원 / 주심3포



계룡시 목조건축 행불선원 / 이원공

덕윤 황을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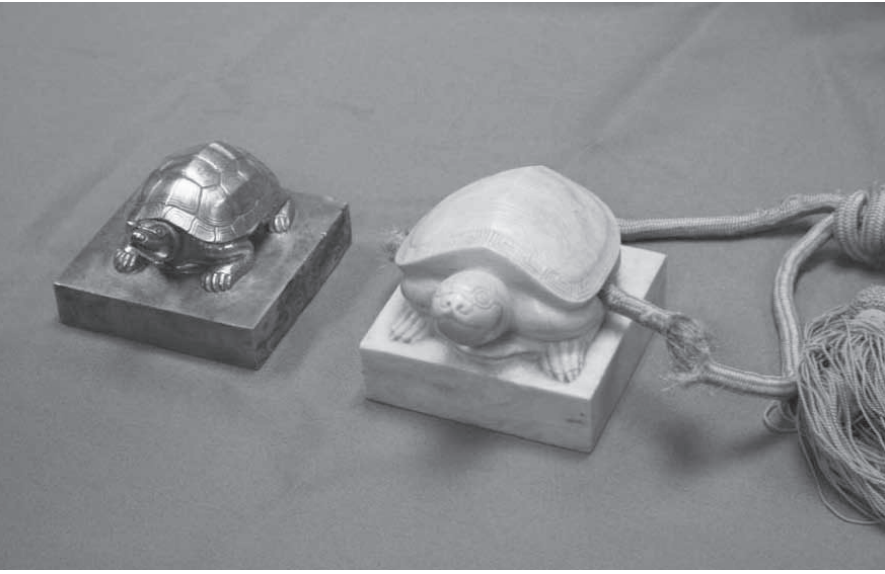
Tel 010.9387.1080

E-mail 1802hwang@hanmail.net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86 경은빌딩 6층

65여 년만에 돌아온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

문정왕후 어보 반환 주역은 불교계



▲ 문정왕후어보(왼쪽)와 현종어보(오른쪽)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어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돌아왔다.

6·25 한국전쟁 전후 미국에 반출된 뒤 65여 년만의 귀환이었다.

어보(御寶)는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을 위해 제작된 의례용 도장이다.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한다.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 2년(1547년) 중종비인 문정왕후에게 ‘성렬대왕대비’(聖烈大王大妃)의 존호(尊號,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리는 것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것

이고, 가로·세로 10.1cm, 높이 7.2cm 크기에 거북 손잡이가 달린 금보(金寶)다.

현종 어보는 효종 2년(1651년)에 현종이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고, 왕세자지인(王世子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옥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문정왕후 어보보다 조금 더 크다.

문정왕후 어보는 2000년에 미국 LA 카운티박물관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로부터 사들였다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에게 압수됐고, 현종 어보는 KBS의 다큐

멘터리 ‘시사기획 창’(2013.5.28.)을 통해 역시 A씨가 소장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미 국토안보수사국이 압수해 보관해 왔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의 압수조치는 문화재청의 수사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한국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해문스님)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환수 운동이 벌어졌다. 한국 약탈 문화재 목록이 담긴 미국 국무부 문서 등을 근거로 6·25전쟁 때 미국 병사가 어보를 훔쳐 가져간 것인 만큼 원래 주인인 한국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문정왕후 어보의 환수 시도는 그동안 계속됐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문정왕후 어보는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17년 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실제 문정왕후 어보 반환운동의 시작은 2009년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문제 제기부터다. 당시 봉선사 스님이었던 해문 대표는 봉선사 회암사 사부대중과 함께 회암사 성보 환수 운동을 시작했다.

해문 대표는 회암사 성보를 찾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조사했고, 2009년 뉴욕에서 문정왕후 어보 반환의 결정적 단서인 ‘미국 국무부 문서’를 찾아냈다.

문서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군 병사에



▲ 문정왕후어보

의해 조선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왕과 왕비 어보 47개가 약탈됐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환수를 위한 결정적 증거를 찾았지만, 환수를 이루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원활한 조사를 위한 해외체류비용 등이 문제였다. 이를 지원한 것이 봉선사 사부대중이었다.

장기 체류 당시에는 미국 뉴저지 보리사, 뉴욕 원각사, 미주 불교문화원 등의 도움이 있었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도 민족문화재 환수라는 명분에 공감해,



▲ 현종어보

공동 성명서와 반환요청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3년 9월 미국 소장처인 LA 주립박물관에서 문정왕후 어보에 대한 반환 결정을 내려진다. 하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해문 스님은 “문정왕후 어보 반환은 봉선사를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과 불자들, 미주 불교계, 북한 불교계 등이 10년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수년간의 운동을 지원하고 결정적 역할을 해 주신 불자들의 역할은 아무리 칭찬해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문 스님은 “500년 전 문정왕후와 허응보우 스님의 꿈을 이루자는 게 문정왕후 어보 반환 운동을 진행했던 진정한 이유”라며 “부처님 앞에 문정왕후 어보를 다시 모시고 왕과 백성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평등한 불국토를 기원하는 법회와 특별전이 회암사에 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8월 예정)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석가탄신일’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

文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인사처,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이며,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 29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2월 인사처에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언론사에도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수용됐다”며 “국민화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이 한글화 추세에 부합하고, ‘석가(釋迦)’라는 단어가 ‘샤카’라는 고대 인도의 특정 민족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어서 부처님을 지칭하기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며 석가탄신일의 명칭 변경을 약속했다.

DMZ 자전거대회 본격 시동 ‘Tour de DMZ 2017’ 9월 초 개최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에서 개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해 제1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세계사이클연맹(UCI) 공인대회로 개최되는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동호인대회,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즈대회로 구성된다.

Tour de DMZ 2017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청소년 대회로써 오는 9월 3일 경기도 고양시를 출발하여 인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인제군을 가로질러 6일 고성군에 도착하는 403.5km 코스의 동서횡단 경기로 진행되며, 국내외 25개 팀 150여명의 청소년 사이클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금년 대회는 세계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는 청소년 국가대항전인 네이션스 컵(N-Cup)으로 개최되며, UCI 규정에 따라 세계 1위부터 25위까지 국가가 출전 자격을 갖게 되고, 대회 성적은 국가별 국제대회 출전인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는 인천광역시가 새롭게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가하고 강화~교동도 코스가 추가됨에 따라 ‘Tour de DMZ 경기구간’이 서해에서 동해까지 비무장지대 전 구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의미 있는 일이며, 내년부터는 강화군 지역도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 경기구간에 정식 포함시켜 경기일정도 올해 4일에서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확정 11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예정

지난 7월 22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등 일부 항목이 감액됐으며, 가뭄대책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등은 증액됐다.

여야가 대립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다만 올해 예산안의 목적 예비비에서 관련 지출을 충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중앙과 지방에서 1만 2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했다. 이 중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1500명 등 450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앙 공무원 채용은 2575명 수준으로 줄었다. 경

찰관 1104명, 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도 977억원이 증액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원, 대기개선 추진대책 30억원, 전통신장 매너저 지원 6억원 등으로 활용된다.

내년 초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을 위해 450억원이 증액됐다. 올림픽 국내외 홍보,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도시경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인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공공부문 직접 채용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8만 4000여 개가 직접적으로 창출되고 직업훈련과 창업 훈련 등으로 2400여 개의 일자리가 간접 창출된다는 분석이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잠원햇살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8길 25(잠원동, 잠원래미안아파트) 문의전화 : 02)536-8725



천년을 간직한 불교의 보물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호류지 특별관

도쿄의 대표적인 공원인 우에노에는 일본 국립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1872년(메이지 5년) 3월에 전년도에 설치된 문부성 박물관에 의하여 일본 최초의 박물관이 유시마 세이도 대성전(湯島聖堂 大成殿, 현재 도쿄도 분쿄구 유시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일본에서의 박물관 시초로 보며, 도쿄 국립박물관은 이 때를 박물관이 창설된 해로 보고 있다.

1876년(메이지 9년)에 다시 박물관으로 개칭된다. 같은 해에 마치다 히사나리(町田久成, 1838년~1897년)가 박물관장에 임명되었다.

사쓰마 번 출신의 관료였던 마치다는 메이지 시대 초기에 박물관 설치나 문화재 보호에 노력한 인물이다. 도쿄 국립박물관에서는 그를 초대 관장으로 여기며 박물관의 뒷마당에는 마치다의 현창비가 건립되어 있다. 한편 박물관의 소관 관청은 1881년(메이지 14년)에 농상공부, 1886년(메이지 19년)에는 궁내성으로 변경되었다.

1938년에 신축된 박물관 본관

1889년(메이지 22년)에 '제국박물관(帝國博物館)'으로 개칭되어 구키 류이치(九鬼隆一, 1852년~1931년)가 총장이 되었다. 이 때 교토와 나라에도 제국박물관이 설

치되었다(교토는 1897년, 나라는 1896년에 개관) 당시 미술부장은 메이지 시대의 미술계의 이론적 지도자 오카쿠라 덴신(岡倉天心, 1863년~1913년)이며, 미국에서 온 미술사 어네스트 페놀로사(Ernest Fenolosa, 1853년~1908년)가 미술부 이사를 맡고 있었다. 이 때부터 미술계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다.

이 시기 본격적인 한국 문화재 약탈이 시작되었고, 전후 일본의 사업가 겸 문화재 수집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년~1964년)가 일제 강점기 시기 한반도에서 도굴, 반출해 간 문화재 중 1856점이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이 가운데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 왕실의 투구 3점을 상대로 민간 차원에서 문화재 반환 운동이 일고 있다.

1947년(쇼와 22년) 5월에 제국박물관은 국립박물관으로 개칭되었고, 소속 관청도 궁내성에서 문부성으로 이전되었다. 도쿄 국립박물관으로 칭하게 된 것은 1952년(쇼와 27년) 부터이다. 국립으로 이관된 후의 초대 관장은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1883년~1966년)이다.

1947년 9월에는 기관지 박물관 뉴스가 창간되었다. 박물관은 새로운 전시관(동양관, 호류지 보물관)의 건설과 수장품의 증대를 통하여 상설 전시물의 확충을 도모하면서 매년 다수의 특별전을 개최하

였다. 그 중에서도 1965년(쇼와 40년)의 '투탕카멘전', 1974년(쇼와 49년)의 '모나리자전' 등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사회적 인 화제가 되었다. 창립 100주년의 1972년(쇼와 47년)에는 '도쿄 국립박물관 소장 명품전'(東京立博物館所 名品展), 창립 120주년의 1992년(헤이세이 4년)에는 특별전 '일본과 동양의 미'(日本と東洋の美)가 개최되어 박물관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 등도 함께 전시되었다.

호류지보물관

호류지 보물관은 1878년(메이지 11년)에 호류지(法隆寺)로부터 황실에 헌납되었다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국가로 이관된 보물 300건을 수장하고 전시하고 있다. 1964년(쇼와 39년)에 개관하였고 현재 건물은 두 번 째 건물로 1999년(헤이세이 11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동양관을 설계한 다니구치 요시로의 아들인 다니구치 요시오(谷口吉生)가 맡았다.

쇼소인(正倉院)의 보물과 비견되는 고대 미술의 컬렉션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쇼소인 보물이 8세기의 작품이 중심인데 비하여, 호류지 보물은 7세기의 작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